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과학 탐구 시간에 여러분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이라는 주제로 모둠별 조사를 했었죠. 저도 그때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상어 피부를 모방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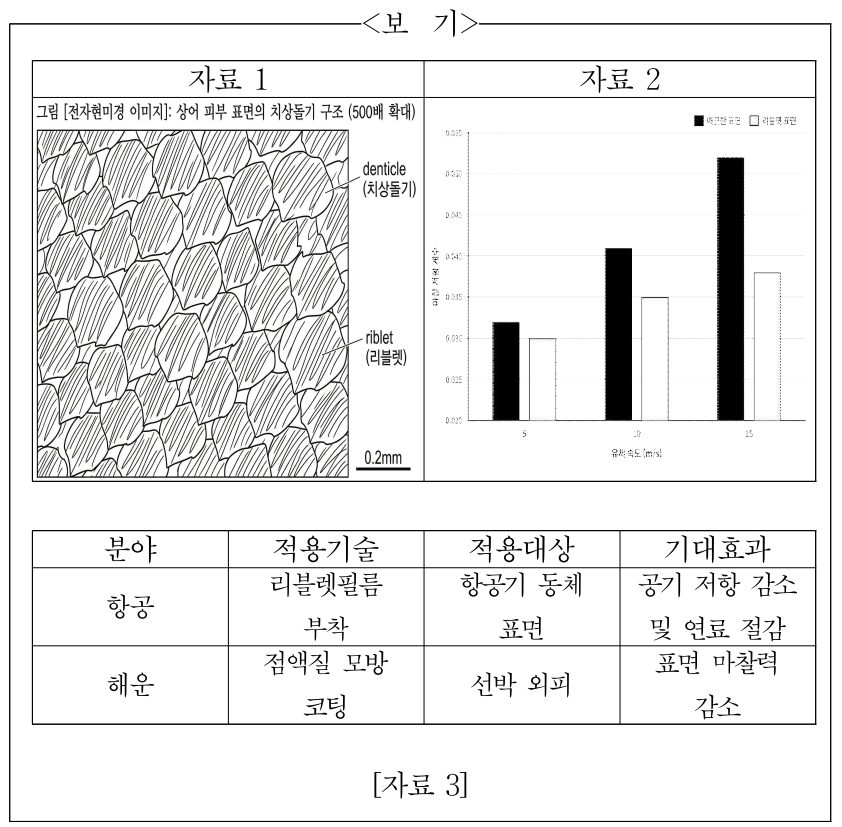
먼저 생체모방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생체모방이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친 생명체의 구조나 기능을 모방하여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상어 피부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 자료 제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어의 피부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상돌기라고 불리는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치상돌기의 표면에는 리블렛이라는 미세한 홈 구조가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에 이런 돌기가 있으면 오히려 저항이 커질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 자료 제시) 이 그래프를 보면, 리블렛 구조를 적용한 표면이 매끈한 표면보다 유체 마찰 저항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블렛의 홈 사이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용돌이가 유체와 표면 사이의 직접 접촉을 줄여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항공·해운 분야에서는 연료 절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제가 최근 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상어 피부 모방 기술의 적용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동체 표면에 리블렛 필름을 부착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고 있고, 해운 분야에서는 선박 외피에 해양 생물의 점액질을 모방한 코팅을 적용하여 수중 마찰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한 항공사는 보유 항공기에 이 필름을 적용하여 연간 약 4,800톤의 연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어 피부를 모방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생체모방 기술은 상어 피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기술에 대해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발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미리 안내한 뒤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한 후 그 답변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수정하며 전개하고 있다.
  - 청중과 공유한 학습 경험을 언급하며 화제를 도입하고, 청중에게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화제에 대한 청중의 사전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료 1]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어 피부의 미세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 [자료 2]는 유체 속도가 높아질수록 리블렛 표면과 매끈한 표면의 마찰 저항 차이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 [자료 2]는 리블렛 구조가 적용된 표면이 매끈한 표면에 비해 유체 마찰 저항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 [자료 3]은 상어 피부 모방 기술의 분야별 적용 사례와 기대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 [자료 3]은 발표자가 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직접 정리한 자료임을 밝히며 ㉢에 활용하였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상어 피부의 리블렛 구조가 물의 저항을 높여서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과학 보고서의 주제를 ‘동물의 운동 원리’로 정했는데, 리블렛에 대해 더 조사해 봐야겠어.

학생 2: 한 항공사가 리블렛 필름으로 연간 약 4,800톤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수치가 놀라웠어. 그런데 이 기술의 제작 비용이나 내구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 3: 발표에서 들은 생체모방 기술의 원리가 우리 모두의 과학 탐구 과제와 관련이 있어. 보고서를 쓸 때 상어 피부 사례를 활용할 수 있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소개한 기술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과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제시한 수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고 이를 검증하려 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자신의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8] (가)는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시사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 1’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의 문화를 살펴보는 ‘문화 돋보기’입니다. 요즘 낙후된 골목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미술 분야의 전문가와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미술의 개념부터 짚어 주시죠.

**전문가1:** 공공미술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에서 출발했는데요, 초기에는 건물 앞에 조형물을 놓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2:**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의 역사나 주민의 삶을 작품에 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 재생 분야에서는 이런 공공미술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공공미술이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1:** 대표적인 변화가 ‘장소특정적 미술’의 확산입니다. 작품이 놓이는 장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작품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서울 녹사평역의 지하 예술 정원이 좋은 사례입니다. 군사 시설이었던 공간의 기억을 빛과 소리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문가2:** 또 하나의 변화는 주민 참여의 확대입니다.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되찾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2:** 네, 공공미술 사업으로 마을이 알려지면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처럼 관광객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고요.

**전문가1:**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벽화 사업도 문제입니다. 지역의 역사나 주민의 삶과 무관한 캐릭터나 풍경을 일괄적으로 그리는 것은 오히려 장소의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장소특정적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놓아도 같은 의미를 갖는 작품은 진정한 공공미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공미술 사업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전문가2:**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술가, 주민, 지방 자치 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되, 주민의 필요와 의견이 사업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문가1:** 거기에 더해 작품이 설치된 이후의 관리와 운영까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작품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이 작품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미술이 됩니다.

(나)

**학생 1:** 우리 이번 주 ‘문화 돋보기’에서 다룬 공공미술에 대해 비평문을 쓰기로 했잖아. 마침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부터 공공미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소재로 하면 어떨까?

**학생 2:** 좋아. ㉡ 나도 그 방송 들었는데, 우리 마을 사업을 떠올리면서 들으니까 더 와닿더라.

**학생 3:** 나도 들었어. 그런데 우리 마을 벽화들이 방송에서 말한 장소특정적 미술에 해당하는지는 좀 의문이야.

**학생 1:** 맞아. 방송에서 장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작품에 담아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마을 벽화는 어떤 것 같아?

**학생 2:** 솔직히 우리 마을 벽화 중에는 마을과 관련 없는 그림이 꽤 있어. 그런데 마을 뒷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벽화는 마을의 옛 광산 역사를 담은 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해.

**학생 3:** ㉢ 그 벽화는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 사진을 제공하고 구술도 해 주셔서 만들어진 거잖아. 방송에서 말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

**학생 1:** 그러네. 그러면 비평문에서 우리 마을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학생 2: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을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아.

㉔ 전문가가 장소의 맥락을 무시한 벽화는 장소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벽화가 있으니 까 그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거야.

학생 3: 그리고 방송에서 관광객 유입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도 나왔잖아. 우리 마을도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골목 주차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이 부분도 넣으면 좋겠어.

학생 1: 그럼 아쉬운 점만 쓰면 비평문이 비판 일색이 되지 않을까?

학생 3: ㉕ 아까 등산로 벽화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 사례를 긍정적 사례로 다루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하면 균형 잡힌 글이 될 거야.

학생 1: 좋아. 그러면 내가 방송 내용과 우리 대화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 볼게.

(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공미술을 활용한 마을 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공미술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을 가리키는데, 건물 앞 조형물 설치에 그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작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부턴 골목 벽화와 소규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마을의 공공미술 사업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의 상당수가 마을의 역사나 주민의 삶과 무관한 캐릭터 그림이다. 어디에 그려도 같은 의미를 갖는 이런 벽화는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벽화 사업 이후 주말 관광객이 늘면서 골목 불법 주차와 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마을 뒷산 등산로 입구의 벽화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벽화는 마을이 한때 광산촌이었던 역사를 소재로 하여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옛 사진을 제공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구술해 주었으며, 예술가가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주민들이 작품 기획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 벽화는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마을 공공미술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등산로 벽화의 사례에서 보듯, 마을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작품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공공미술이 주민의 삶과 유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을 재생의 진정한 매개가 될 수 있다.

4. (가)와 (나)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한 참여자가 나머지 참여자들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화의 참여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도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화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의 과업을 정하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발언하는 참여자가 있다.

5.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서, 진행자는 앞선 두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아 정리하고 있다.
- ② ㉒에서, 학생 2는 방송을 시청한 경험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 지으며 대화 주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에서, 학생 3은 상대가 언급한 사례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방송에서 다룬 개념과 연결 짓고 있다.
- ④ ㉔에서, 학생 2는 방송에서 들은 전문가의 견해를 자기 마을 사례에 적용하며 비평문에서 다룰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⑤ ㉕에서, 학생 3은 앞서 논의된 부정적 평가에 반론을 제기하며 비평문이 긍정적 관점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미술의 개념에 대한 '전문가 1'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공공미술의 변화 과정을 서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②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전문가 1'의 견해를 '학생 2'가 자기 마을에 적용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가 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③ 주민 참여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2'의 말을 '학생 2'가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등산로 벽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거로 반영되었다.
- ④ 관광객 유입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1'의 말을 '학생 3'이 자기 마을의 경험과 연결하여 밝힌 의견이, (다)에서 마을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반영되었다.
- ⑤ 작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1'의 말을 '학생 2'가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마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7. (다)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평 대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평가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비평 대상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비평 대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비평 대상의 배경이 되는 개념의 변화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⑤ 비평 대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비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8. 다음은 (다)의 4문단을 작성하기 전에 쓴 초고이다. 초고를 고쳐 쓴 (다)의 4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 마을 공공미술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마을의 역사를 반영한 작품이 더 많아져야 한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을 공공미술이 마을 재생의 진정한 매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① 초고에서 비평의 논지와 어긋나는 문장을 삭제하고, 관광객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추가하였다.
- ② 초고에서 마을의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앞의 문단에서 다룬 사례를 언급하여 글의 주제를 전환하였다.
- ③ 초고에서 마무리 문장의 필자의 바람을,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교체하여 결론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 ④ 초고에서 마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정책 제언을 추가하고, 결론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 ⑤ 초고에서 경제적 효과에 관한 근거를 보강하고, 마을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협상은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 협상 연구에서는 협상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는 분배적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통합적 협상이다.

분배적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자원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한쪽이 더 많이 얻으면 다른 쪽은 그만큼 덜 얻게 되므로, 양측은 서로의 몫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반면 통합적 협상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원의 총량 자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장이란 당사자가 외부에 표명하는 구체적 요구를 뜻하고, 이해관계란 그 입장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 필요나 목적을 가리킨다. 예컨대 두 부서가 하나의 회의실을 놓고 “우리 부서가 오전에 사용하겠다.”라고 각각 주장한다면, 이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 부서의 이해관계가 ‘조용한 환경에서의 집중 업무’이고 다른 부서의 이해관계가 ‘대면 화상회의를 위한 장비 접근’이라면, 양측의 이해관계는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통합적 협상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이 자신의 최선의 대안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최선의 대안이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차선책을 말한다. 최선의 대안이 명확할수록 당사자는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로가 높게 평가하는 의제가 다를 때,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의제에서 양보하고 더 중요한 의제에서 이득을 취하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을 발견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설계하는 것이 통합적 협상의 핵심 전략이다.

(나)

특정한 자원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을 때, 그 자원의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체계를 거버넌스라 한다. 공유 자원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을 살펴야 한다. 배제성이란 특정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고, 경합성이란 한 이용자의 소비가 다른 이용자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정도를 가리킨다. 공공도서관이나 공원처럼 배제성이 낮고 경합성도 비교적 낮은 자원은 순수 공공재에 가까운 반면, 어장이나 공유 목초지처럼 배제성은 낮으나 경합성이 높은 자원은 ‘공유 자원’으로 분류된다.

공유 자원에서는 이용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원을 과다 사용하거나, 관리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기를 기대하며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공유지의 딜레마’라 부른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원을 사유화하여 소유자에게 관리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여 이용 규칙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는 이 두 방법과 다른 접근을 취한다. 자원의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용 규칙을 설계하고, 규칙 준수를 상호 감시하며, 위반 시 단계적 제재를 가하는 자치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원의 경계가 명확해야 하고, 이용 규칙이 현지 사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규칙의 변경에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에 자원에 대한 의존도나 영향력이 비대칭적일 경우, 규칙 설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가 과대 반영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상호 감시의 비용이 높아져 자치적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3층의 교실 세 칸이 유휴 상태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대표와 지역주민센터 담당자가 공간 활용 조건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협상 과정의 일부이다.

학생 1: ㉠ 저희 학생자치회에서는 유휴 교실 세 칸을 모두 방과후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실이 부족해서 여러 동아리가 시간을 나눠 쓰고 있거든요.

담당자1: 주민센터에서는 그 공간에서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합니다. ㉡ 고령 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과 학부모 대상 양육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상시 운영이 가능한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A]

학생 2: 세 칸을 전부 지역 프로그램에 쓰면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없어지지 않나요? 학교 시설인 만큼 학생의 교육 활동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2: 교육부 정책에서도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휴 교실이라면 지역과 나눠 쓰는 것이 공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봅니다.

학생 1: 저희가 세 칸 모두를 종일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외 시간, 예컨대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사실 교실을 비워 두게 됩니다.

담당자1: 그렇다면 시간대를 나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프로그램 중 디지털 문해 교육은 주로 오전에, 양육 상담은 저녁에 진행하거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매번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 최소한 한 칸은 장비를 상설로 배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B]

학생 2: 한 칸을 전용으로 배정하는 대신, 나머지 두 칸에 대해서는 오후 4시부터 6시를 학생 우선 사용 시간대로 보장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2: 그 정도면 저희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실의 냉난방비와 청소는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민센터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1: ㉤ 관리 비용을 사용 시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세 칸 중 두 칸을 주 10시간 정도 쓰고, 주민센터에서 세 칸을 합쳐 주 20시간 정도 쓴다면, 대략 1대 2 비율로 분담하는 겁니다.

담당자1: 비용 분담 비율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하죠? 장비를 설치하면서 벽면에 선반을 고정하거나 전기 배선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까지 학생 측에서 분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학생 2: 시설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부담하되, 원상 복구 의 [C]

무를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담당자2: 동의합니다. 그리고 운영 상황을 학기마다 점검하는 공동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1: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한 칸은 주민센터 전용으로, 나머지 두 칸은 시간대별 공유로 하되 오후 4시~6시는 학생 우선 사용, 관리 비용은 사용 시간 비율에 따라 분담, 시설 변경 비용은 주민센터 부담 및 원상 복구 의무로 합의하겠습니다. 공동 운영 위원회 구성도 포함하고요.

9.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따르면, 분배적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 ② (가)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의 최선의 대안이 불명확하면 합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 ③ (나)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원의 경계가 명확하고 이용 규칙이 현지 사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④ (나)에 따르면, 공유 자원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이용자의 관리 부담이 분산되어 자치적 관리 체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⑤ (가)에서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반면, (나)에서 이해관계자 간 영향력의 비대칭성은 규칙 설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10. (가), (나)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학생 1이 세 칸의 전용 사용을 요구하면서 동아리 활동실 부족을 근거로 든 것은, (가)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에서 학생 1이 동아리 활동이 오후 4-6시에 집중된다는 정보를 밝힌 것은, (가)에서 말하는 ‘입장’의 이면에 있는 ‘이해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에서 담당자 1이 장비의 상설 배치를 위한 전용 공간을 요구한 것은, (나)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자 간 비대칭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에서 학생 1이 비용을 사용 시간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은, (가)에서 말하는 ‘최선의 대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C]에서 양측이 시설 변경 비용과 원상 복구 의무를 분리하여 합의한 것은, (나)에서 제시한 사유화 방식으로 공유지의 딜레마를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협상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수용 단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와 관심사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의 요구를 파악한다. 둘째,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양보나 대안을 제시하며 조율한다. 셋째, 합의 단계에서는 조정된 내용을 종합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서는 ‘양보’, 서로 다른 의제에서 각각 양보와 획득을 교환하는 ‘교환’, 양측의 이해관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통합’이 있다.

- ① [A]에서 학생 1과 담당자 1이 각각 유휴 교실의 활용 방향을 밝히고, 학생 2와 담당자 2가 학생 우선 배정과 공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수용 단계에서 양측이 자신의 요구와 관심사를 상대에게 전달한 것에 해당한다.
- ② [B]에서 학생 2가 “한 칸을 전용으로 지정하는 대신” 학생 우선 사용 시간대의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조정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제인 공간 배정과 시간대 확보를 맞바꾸는 ‘교환’ 전략을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③ [B]에서 학생 1이 동아리 활동 시간대를 밝히고 담당자 1이 자신의 프로그램 시간대와 비교하여 시간대 분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조정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제에서 양보와 획득을 맞바꾸는 ‘교환’ 전략을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④ [B]에서 담당자 2가 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정 단계에서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추가로 확인한 것에 해당한다.
- ⑤ [C]에서 학생 1이 공간 배정, 시간대 운영, 비용 분담, 시설 변경 책임, 공동 운영 위원회 구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은, 합의 단계에서 조정된 내용을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안으로 확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12.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의 합의가 시행된 이후, 공동 운영 위원회의 1학기 점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

“공유 교실의 실제 사용 시간이 당초 합의와 달라지고 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 302호의 사용 시간이 주 15시간에서 주 2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학생 동아리의 사용 시간은 주 10시간으로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의 실제 분담 비율이 당초 합의 비율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302호에서 학생 동아리가 사용하려는 오후 4-6시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연장 운영되어 시간대가 겹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 ① <보기>에서 사용 시간대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나)에서 지적한 공유 자원의 ‘경합성’이 높아진 사례에 해당하며, ㉠에서 학생 1이 제안한 비용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주민센터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② <보기>의 시간대 충돌 문제는, (가)에서 말하는 양측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므로, 양측의 ‘이해관계’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시간표를 설계하는 것이 (가)의 관점에서 적합한 접근이다.
- ③ <보기>에서 주민센터 사용 시간이 증가한 상황은, (나)에서 말하는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자치적 관리 효율성 저하의 사례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나)에서 제시한 사유화 방식, 즉 교실 사용권을 특정 측에 완전 이전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 ④ <보기>의 비용 분담 비율 변동은, (가)에서 말하는 ‘최선의 대안’이 협상 이후에 변화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학생 측의 최선의 대안을 재평가하여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보기>에서 비용 분담과 시간대 충돌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가)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이 합의 이후에 확대된 사례이며, 공동 운영 위원회의 점검 기능은 (나)에서 말하는 자치적 관리 체계의 ‘규칙 준수 상호 감시’ 기능에 해당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복수의 투자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심사를 받는 시장을 순차적 자본시장이라 한다. 이 시장에서 기업가는 이자율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방문하며, 방문받은 투자자는 무비용으로 실사를 수행하여 프로젝트 유형에 관한 사적 신호를 획득한다. 신호가 일정 수준, 즉 심사 문턱 이상이면 투자자는 제시된 이자율로 투자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한다. 이 문턱 수준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낮아져서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기업가가 특정 투자자에게 거절당하면, 후속 투자자는 선행 투자자의 사적 신호 자체는 관찰할 수 없으나 거절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향 조정한다. 이처럼 거절의 이력이 후속 투자자의 선택 기준을 왜곡하여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자금 조달에 불리해지는 현상을 '역선택'이라 하자.

기업가의 시장 체류 기간이 투자자에게 관찰 가능한 시장을 투명 시장이라 한다. 이 시장에서 기업가는 이자율을 선택할 때, 현재 라운드에서의 투자 확률과 자기 잉여 사이의 상충관계만을 고려한다. 후속 투자자가 기업가의 이자율 선택 자체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기대에 기초하여 신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가는 자신의 선택이 후속 라운드의 역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내면화하지 못한다. 그 결과 기업가는 투자 확률이 높은 쪽으로 치우친 선택을 하게 된다. 후속 투자자들도 이러한 행태를 예상하여 거절 이후의 프로젝트 품질 평가를 더욱 하향 조정하는데, 이는 다시 기업가에게 높은 이자율을 택할 유인을 강화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자신의 결정이 후속 라운드의 역선택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동태적 역선택 외부성이라 한다.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시장 균형을 평가하면 두 가지 상반된 왜곡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기업가는 투자 시 발생하는 잉여 전체를 향유하지 못하므로, 그만큼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비대칭 정보 하 자금 조달에 관한 전통적 시각에서 주로 지적해 온 힘이다. 둘째, 동태적 역선택 외부성에 의한 왜곡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사회계획자가 선호하는 시장의 크기는 투자자의 신호 분포 특성에 의존한다. 좋은 프로젝트와 나쁜 프로젝트를 식별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고신호 영역으로 갈수록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분포에서는 사회계획자가 가능한 한 많은 투자자를 활용하되 모든 라운드에서 동일한 문턱을 적용하는 해법을 선호한다. 반면 그러한 식별 기여가 고신호 영역에서 오히려 정체를 하는 분포에서는 소수의 투자자만 활용하고 나머지 라운드의 심사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여 사실상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더 큰 잉여를 산출한다.

기업가의 시장 체류 기간이 관찰되지 않는 불투명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순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여 기업가의 우선 방문을 유도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 경쟁의 결과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제시하는 분리균형에 도달하며, 투자자 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모든 문턱이 최고 수준으로 수렴하여 투자자 지대는 소멸한다. 중앙집중 시장, 즉 투자자들이 사적 신호를 관찰한 뒤 동시에 이자율을 입찰하여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매 구조에서도 유사한 경쟁적 결과가 도출된다.

투명 시장에서는 거절이 누적될수록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인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일정 라운드 이후에는 어떤 투자자도 최고 신호를 받아도 수지가 맞지 않는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계획자가 대규모 시장을 선호하는 분포 조건에서는, 불투명 시장과 중앙집중 시장

모두 투자자 수 증가에 따라 경쟁적으로 수렴하므로 사회적 잉여에 근접하는 결과를 산출한다. 반면 사회계획자가 소규모 시장을 선호하는 분포 조건 하에서는, 투명 시장의 내생적 시장 붕괴가 시장 크기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투명 시장의 기업가는 자신의 이자율 선택이 후속 역선택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내면화한다.
- ② 투명 시장의 기업가는 투자 성사 확률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잉여를 높이는 이자율을 설정한다.
- ③ 불투명 시장에서는 이자율 인하 경쟁을 거쳐 투자자 간 이자율 차이가 해소되는 균형에 도달한다.
- ④ 순차적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는 각각 정보 구조에 따른 상충적 유인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 ⑤ 식별 기여가 고신호 영역에서 체증하는 분포라면 사회계획자는 소수의 투자자만 활용하는 해법을 선호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투명 시장에서도 투자자 수가 충분히 증가하면 투자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투자자 지대가 소멸하는 결과에 근접할 것이다.
- ② 사회계획자가 선호하는 시장 규모가 신호 분포 조건에 의존하므로, 두 가지 상반된 왜곡 요인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도 분포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③ 기존 문헌에서 지적되어 온 투자 위축 요인이 순차적 자본시장에서도 존재하므로, 이 시장의 투명 시장 균형에서 투자 수준은 사회적 최적에 미달할 것이다.
- ④ 투자의 잉여를 기업가가 전부 향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왜곡과 동태적 역선택 외부성에 의한 왜곡은 모두 투자를 사회적 최적보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⑤ 기업가의 시장 체류 기간이 관찰되지 않는 시장에서도 거절의 누적에 따른 프로젝트 품질 평가의 악화로 일정 라운드 이후 투자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15.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신생 기술 기업 값이 두 나라에서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A국에서는 기업의 투자 유치 이력이 신용 등록부에 기록되어 모든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 B국에서는 그러한 등록부가 없어 기업이 몇 차례 거절당했는지 알 수 없다. 두 나라 모두 투자자 수는 매우 많고, 투자자의 심사 기술은 동일하다. 다만 A국과 B국의 투자자 신호 분포 특성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가) A국: 좋은 프로젝트와 나쁜 프로젝트의 식별 기여가 고신호 영역으로 갈수록 체계적으로 높아진다.  
 (나) B국: 식별 기여가 중간 신호 영역에서 가장 높고 고신호 영역에서는 정체한다.

- ① A국에서는 (가)의 분포 조건상 사회계획자가 가급적 많은 투자자의 심사를 활용하는 해법을 선호하므로, A국의 시장 구조가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 ② A국에서는 기업가의 투자 유치 이력이 공개되므로, 후속 투자자는 균형 기대보다는 기업가의 이자율 선택에 대한 실제 관찰에 기초하여 신념을 형성할 것이다.
- ③ (나)의 분포 조건 하에서는 A국의 시장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적 투자 차단이 시장의 규모를 억제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나)의 분포 조건 하에서는 B국의 시장 구조가 투자자 간 경쟁을 통해 사회적 잉여에 근접하므로, B국이 A국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 ⑤ 두 나라 모두 투자자 수가 매우 많으므로, 양국에서 투자자 간 경쟁이 충분히 심화되어 투자자 지대는 소멸할 것이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문주의는 개인의 자의의식이 강화되면서 발전해 왔으나, 그 관심은 어디까지나 삶에 있었다. 욕망을 절제하고 사심을 버려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참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문주의자들이 제시한 인생의 의미이다. 칸트 역시 자율적 주체로서 도덕법칙에 따르는 참사람의 이념을 지향했다. 그러나 인문주의에서 죽음은 삶의 한계이자 끝에 불과하여, 죽음 자체가 적극적 주제로 사유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존재 가능한 근거라고 선언한다. 내가 참으로 나로서 존재하려면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을 벗어나 무가 되어야 하며, 죽음은 그러한 무아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라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관심은 '나'라고 하는 주체의 해체에 있다. 세상에 사는 한, 나는 부와 지위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규정된다. 하이데거가 볼 때 이처럼 세상에 빠져 자아의 고유함을 잃는 것이 퇴락이며, 소유를 늘려 존재감을 높이는 일상적 삶 역시 비본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세인(世人)으로서 획득한 나의 모든 내용물이 소거된 상태를 존재라 부르며, 이때의 존재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나에 붙어 있는 고유 동사로서 나를 비우는 사건이다. 하이데거가 참나를 가리켜 일인칭 주어 '나' 대신 비인칭 재귀대명사 '그것 자신'으로 표현한 까닭도 여기에 있으니, 참나란 주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무규정적 본래성이지, 도덕적 주체나 의미의 근원으로서의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론을 기초 존재론이라 칭하며 전통 형이상학 및 존재신학과 다른 길을 간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존재 자체로 놓고, 질료를 가진 인간은 이데아에 비해 덜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신학으로 변환하여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인간을 그보다 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인간이 무에 가까운 사물을 사랑할수록 존재의 정도가 약해져 허무에 이르고, 이것이 곧 죽음이라고 보았다. 나는 이미 존재하지만, 내가 사라지고 내용 없이 텅 빈 채로 존재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서 실존은 곧 본질이며,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으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실존이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무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고 살며 타자와 관계하는 한, 소유와 연관에서 비롯된 나를 온전히 벗을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이 완전한 무아의 상태를 전체 존재 가능이라 부르는데, 전체 존재 가능은 세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죽음은, 이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돌려놓는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무아의 가능성으로서 내 앞에 닥쳐 있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칸트에게서 악의 성향을 완전히 근절하여 순수한 도덕성에 도달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참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 이념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에서 가능성이 나온다. 이 가능성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으로 남으며, 의지의 전체 대상을 향해 무한히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하이데거에게서도 존재 가능한 총체는 실현할 수 없고, 죽음을 가능성으로서 견디는 한에서 언제나 현실적이다.

칸트에게서 확실성은 이성사실에서 생기는 주관적 확실성이며, 의무를 이행하는 의지 규정의 근거가 된다. 선형적 도덕법칙이 자유와 신의 현실성을 요청하고, 이 요청이 도덕적 완전성을 향한 전진을 뒷받침한다. 반면 하이데거에게서 확실성은 확신이며, 그 확신은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 가능한 사태를 증언하는 데에서 생긴다. 나는 진리의 주체가 아니라 증언자일 뿐이며, 드러난 참된 사태에 합당하게 나

를 규정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확신이다. 당위 역시 다르다. 칸트의 당위는 이성사실에서 발생하는 자율적 의무이자 주체적 자기 규제인 반면, 하이데거의 당위는 존재론적 사실성에서 발생하며, 이미 드러난 가능성을 증언하고 거기에 이끌려 자신을 존재 가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결단이라 부르는 것도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동적 떠맡음이다. 존재가 먼저 나를 규정하며, 나는 그 사실성을 증언하고 떠맡을 뿐이다. 존재와 나 사이에 순환이 있으나 동등한 순환이 아니며, 존재의 선행적 규정력 아래에서만 나의 결단은 의미를 갖는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하이데거에게서 퇴락이란 윤리적 타락에 대한 존재론적 진단이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죽음은 존재 가능의 전환 계기로 기능한다.
- ③ 전통 존재론이 존재의 정도를 말한다면, 기초 존재론은 존재의 당위를 말한다.
- ④ 하이데거에게서 본래성 회복이란 도덕적 인격 완성의 존재론적 기반 확보이다.
- ⑤ 칸트에게서 도덕적 완전성은 의지적 전진이 지속되는 한 실현에 수렴할 수 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 내에서 비본래적 규정성의 잔존은, 전체 존재 가능이 세계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에 대응한다.
- ② 칸트와 하이데거 양자의 불가능한 가능성은, 당위적 이념에서 비롯된 의무가 행위를 추동한다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한다.
- ③ 하이데거에게서 당위는 주체의 자기 입법이 아니라 본래성을 향한 이끌림에서 비롯되므로, 칸트적 자율과 발원 구조가 다르다.
- ④ 하이데거에게서 결단은 존재가 열어 놓은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존재와 결단의 순환에서 규정력의 선행성은 존재 쪽에 있다.
- ⑤ 하이데거에게서 존재는 주체를 비우는 사건이므로, 궁극적 실재에의 근접으로 존재를 측정하는 전통적 이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은 화가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는 항상 전시회에서 평론가의 호평과 대중의 호응을 의식하며 그림을 그려 왔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작품이 오직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 속에서 갑은 평론가와 대중의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자신이 완전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구를 사고, 전시 공간을 빌리고, 동료 화가와 교류하는 한, 타자와의 연관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 ① 갑이 불안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한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실천적 의지에 의한 규정을 통해 확신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한다.
- ② 갑이 불안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차단한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세상이 부여한 규정을 소거하여 무아에 도달하려는 결단에 해당한다.
- ③ 갑이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도 기대를 내려놓은 채 그리는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전체 존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되 가능성으로서 견디는 방식에 대응한다.
- ④ 갑이 평론가와 대중의 기대를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도덕적 이념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의지적 결단에 해당한다.
- ⑤ 갑이 독창적 예술 세계를 추구하면서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공공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참사람의 이념에 부합하는 존재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모든 거래를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거래 처리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샤딩’은 거래 처리를 ‘샤드’라 불리는 복수의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하여 병렬 처리하는 방식이다. 각 계정은 특정 샤드에 배치되며, 동일 샤드 내 계정 간 거래는 해당 샤드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반면 서로 다른 샤드에 배치된 계정 사이의 거래인 ‘교차 거래’는 샤드 간 동기화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통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를 그래프로 모델링하면, 계정은 정점으로, 거래는 간선으로 표현되고, 각 정점에는 해당 계정의 처리 부하를, 각 간선에는 두 계정 사이 거래의 호출 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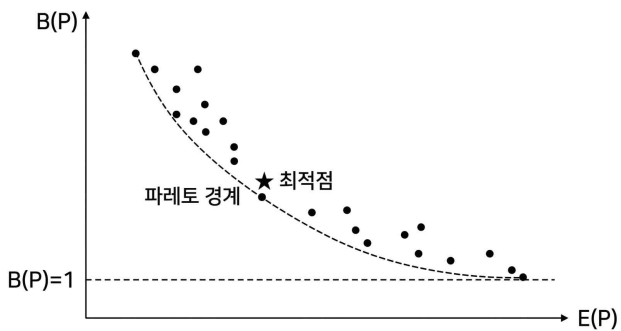
이 그래프에서 정점을 샤드에 배분하는 방식을 ‘분할’이라 하며, 그 성능은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교차 비율  $E(P)$ 는 전체 간선의 가중치 합 대비 교차 거래 간선의 가중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0에 가까울수록 교차 거래로 인한 통신 비용이 낮다. 균형도  $B(P)$ 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B(P) = |S| \times \max W(S_i) / \Sigma W(S_i)$$

$|S|$ 는 샤드의 수이고,  $W(S_i)$ 는 샤드  $i$ 에 배치된 정점들의 가중치 합이다. 모든 샤드의 부하가 균일하면  $B(P)$ 는 1이 되고, 특정 샤드에 부하가 집중될수록 값이 커진다. 상호작용이 빈번한 계정들을 같은 샤드에 배치하면  $E(P)$ 는 줄어들지만, 해당 샤드에 처리 부하가 쏠려  $B(P)$ 가 커지게 된다. 반대로 부하를 고루 분산시키면  $B(P)$ 는 1에 가까워지지만  $E(P)$ 는 증가한다. 이 상충 관계를 다루는 한 방법으로, 새 계정  $v$ 를 배치할 때 각 샤드  $i$ 에 대해 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샤드에 배치하는 온라인 분할 알고리즘이 있다. <점수 합수>는 다음과 같다.

$$H(v, i) = \gamma \cdot R(v, i) - (1 - \gamma) \cdot L(i)$$

$R(v, i)$ 는 계정  $v$ 와 거래 관계가 있는 계정 중 샤드  $i$ 에 이미 배치된 것들과의 간선 가중치에 기초한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v$ 를 해당 샤드에 배치했을 때의 교차 거래 감소 효과가 크다.  $L(i)$ 는 샤드  $i$ 의 현재 부하 비율이다.  $\gamma$ 는 0과 1 사이의 계수로, 두 항의 비중을 조절한다.  $\gamma$ 를 변화시키며 분할을 수행하면  $E(P)$ 와  $B(P)$ 가 각기 다른 값을 갖는 결과들이 산출되며, 이를 <그림>과 같이 2차원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



한편, 각 계정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접근도 존재한다. 두 노드  $i, j$ 의 유사도  $S(i, j)$ 는 양쪽에 모두 이웃한 노드의 수를 양쪽 중 어느 한쪽에라도 이웃한 노드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K$ 개 샤드를 구성하려면 먼저  $K$ 명의 ‘리더’를 선정한 뒤, 각 노드를 리더와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에 할당한다. 이후 클러스터 내에서 다른 모든 소속 노드와의 유사도 합이 가장 큰 노드를 새 리더로 갱신하는 과정을 리더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런데 리더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선정된 어떤 리더와도 유사도가 0인 노드는 어느 클러스터에도 할당되지 못하는 잉여 노드로 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그래프 내 각 연결 부분그래프의 가중치를 산출하되, 가중치는 해당 부분그래프에 속한 모든 노드 각각의 유사도 합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정한다. 가중치가 가장 큰 부분그래프를 ‘주류 그래프’로 지정하여  $K-1$ 개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그래프의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수용한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E(P)$ 를, 수직축은  $B(P)$ 를 나타낸다. 여러  $\gamma$  값에 대해 온라인 분할을 수행한 결과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점들의 상단 좌측 경계를 ‘파레토 경계’라 한다. 이 경계 위의 어떤 점에서도 한 지표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다른 지표가 악화된다.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지표를 반영하는 목적함수의 값이 파레토 경계 위에서 최대가 되는 점에 대응하는  $\gamma$ 를 선택하여 분할 알고리즘에 적용하게 된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샤딩은 거래 처리를 복수의 샤드에 분배하여 병렬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 ② 교차 거래가 발생하면 샤드 간 동기화 절차에 따른 추가 통신 비용이 수반된다.
- ③ 두 노드의 유사도는 공유 이웃의 수를 전체 이웃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 ④ 균형도가 1을 초과하면 모든 샤드의 처리 부하가 균일 배분의 수준을 넘는다.
- ⑤ 주류 그래프는 소속 노드들의 유사도 합을 모두 합산한 값이 가장 큰 부분그래프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음은 6개의 계정( $v_1 \sim v_6$ )과 3개의 샤드( $S_1, S_2, S_3$ )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각 계정의 처리 부하와 계정 간 거래의 호출 빈도는 아래와 같다. (단, 전체 간선의 가중치 합은 23이고, 샤드의 수는 3이다.)

[계정 부하]  
 $v_1: 20, v_2: 30, v_3: 10, v_4: 40, v_5: 20, v_6: 30$

[거래 관계 및 호출 빈도]  
 $v_1-v_2: 5, v_1-v_3: 3, v_2-v_3: 4,$   
 $v_3-v_4: 2, v_4-v_5: 6, v_5-v_6: 3$

[현재 배치]  
 $S_1 = \{v_1, v_2, v_3\}, S_2 = \{v_4, v_5\}, S_3 = \{v_6\}$

ㄱ. 현재 배치에서  $v_3$ 를  $S_2$ 로 이동시키면  $E(P)$ 는 증가한다.  
 ㄴ.  $v_3$ 과 거래 관계가 있는 계정이  $S_2$ 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gamma$ 의 값에 관계없이  $H(v_3, S_2)$ 는 양수(+)이다.  
 ㄷ.  $v_1$ 과  $v_4$ 를 리더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면  $v_5$ 는 잉여 노드가 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 2>는 어떤 시스템에서 온라인 분할 알고리즘의 계수  $\gamma$ 를 조절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 현재 시스템은  $\gamma = \gamma_0$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때의  $E(P)$ 와  $B(P)$ 는 점 ㉠에 해당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gamma$ 를  $\gamma_0$ 보다 크게 조정한다.  
 B:  $\gamma$ 를  $\gamma_0$ 보다 작게 조정한다.

- ① A를 시행하면, <점수 함수>에서 R항의 비중이 커져  $E(P)$ 는 현재보다 감소한다.  
 ② A를 시행하면, 분할 결과는 ㉠에서 파레토 경계를 따라 ㉢ 방향으로 이동한다.  
 ③ ㉠에서 ㉡로 이동하면,  $E(P)$ 는 줄어들지만  $B(P)$ 는 1에서 멀어진다.  
 ④ B를 시행하면, <점수 함수>에서 L항의 비중이 커져  $B(P)$ 는 현재보다 1에 가까워진다.  
 ⑤ ㉠이 최적점이라면, A와 B 어느 쪽을 택하든 목적함수의 값은 현재보다 작아진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뺨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 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뺨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껍어 있는 꺾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 나희덕, 「뿌리에게」 -

(나)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잎 맞추며  
나무는 ㉣ 그의 힘을 꿈꾸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땀 비비며 나무는  
소리 내어 ㉤ 그이 피를 꿈꾸고  
가지에 부는 바람의 푸른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생이 흔들이는 소리를 듣는다.  
- 정현중, 「사물의 꿈」 -

(다)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글자에는 모두 원의(原義)가 있으니, 먼저 그 원의를 안 뒤에야 여러 경(經)에서 말한 본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인(仁)은 두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이 각기 자기의 분수를 다하는 것이다. 선성(先聖)들이 모두 ‘인(仁)은 인(人)이다’라 하였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의(義)는 나에게 좋게 하는 것이니, 중히 여기는 바가 나에게 있어 때로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禮)는 제례(祭禮)이며, 지(智)는 흑백(黑白)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인의예지 모두 행사(行事)로써 이름을 얻은 것이니, 마음에 있는 이치라고 할 수가 없다.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였는데, 뿌리란 초목의 뿌리이다. 그 ㉧ 지엽(枝葉)과 화실(華實)은 아름답고 무성하게 토양 밖에 있으나 그 뿌리는 토양 속에 있다.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인의예지를 속에 있는 뿌리라 한다면 이 뿌리로부터 나와 밖으로 발육되는 것은 끝내 어떤 물건이겠는가. 조기(趙岐)가 ‘네 가지는 뿌리가 마음에서 나서 빛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라 하였으니, 인의를 행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면 맑은 기운이 등에까지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 모두 행사(行事)로써 말한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허령(虛靈)하여 신묘하게 만물을 응대하니, 그 성품이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맹자가 네 마음만을 끄집어내어 말한 것은 성품이 선함을 증명한 것뿐이고, 이 네 마음 외에도 헤아릴 수 있는 많은 마음이 있다. 만약 가지 하나에 각각 뿌리가 하나씩 있다고 한다면, 네 뿌리에서 다만 네 개의 가지만이 생길 뿐 ㉨ 목강부재(木強不才)하여 묘응[妙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마음이 되는 것은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다.

측은[惻隱] 등 네 마음은 인의예지를 할 수 있는 본리(本理)일 뿐이다. 이 네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인을 행한 뒤에야 어진 사람, 의를 행한 뒤에야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인의예지의 뿌리는 사단(四端)에 있고, 사단의 뿌리는 영명(靈明)에 있으며, 묘응의 본체는 그 성품이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뿐이다.

- 정약용, 「이여홍에게 보내는 답장」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색채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대상이 성장하여 독립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대상이 외부와 교감하는 양상을 감각의 변동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 ③ (다)는 대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나열한 뒤 그 공통점을 추출하여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뿌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내재된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와 자연물이 정서를 교류하는 양상을 그리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네게 흘려보내’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생명력을 기꺼이 대상에게 전해 주는 행위를, ㉡이 되어 대상을 ‘감싸’는 것은 화자가 대상의 성장을 위해 수용적 역할을 자처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 ② ㉡에서 ㉢으로의 변화는 대상이 밖으로 뺏어 나간 뒤 화자에게 남겨진 상태를 나타내며, 화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의 성장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드러난다.
- ③ ㉢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분수를 다하는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은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바를 따르는 데서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 ④ ㉢과 ㉣이 모두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면, (가)에서 ㉠을 ‘흘려보내’는 행위는 ㉢이, ㉡이 되어 ‘감싸’는 행위는 ㉣이 실현된 사례에 해당한다.
- ⑤ ㉢과 ㉣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이치가 아니라고 한 데에서, (다)의 글쓴이가 인의예지를 내면에 내재한 원리가 아닌 실천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서 나무가 ㉠을 ‘꿈꾸’는 것은 햇빛이 나무에게 부여한 속성을 간직하려는 태도를, ㉡을 ‘꿈꾸’는 것은 비가 나무에게 부여한 속성을 간직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과 ㉡은 나무가 외부 자극과 교감하며 자각하게 되는 자기 내면의 잠재적 속성이고, (다)에서 ㉢은 내면의 뿌리가 밖으로 발현되어 실현된 것을 가리킨다.
- ③ (나)에서 ㉠과 ㉡은 나무가 이미 실현한 성과이고, (다)에서 ㉢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토양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 ④ (다)에서 ㉣은 ㉢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토양 속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나)에서 나무가 ㉠과 ㉡을 꿈꿀 뿐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와 대응된다.
- ⑤ (다)에서 ㉢이 무성해지려면 ㉣의 상태를 먼저 거쳐야 하듯, (나)에서 나무가 ‘자기의 생이 흔들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과 ㉡을 버려야 한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의 시인은 후속작 「뿌리로부터」에서 시적 태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제는 뿌리보다 즐거울 믿는 편이다  
즐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중략)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 끝의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중략)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

- 나희덕, 「뿌리로부터」 -

「뿌리에게」에서 대지는 뿌리와 의 합일 속에서 현신의 기쁨을 느끼며, 뿌리가 떠난 뒤에도 순환을 통해 영원성을 꿈꾼다. 반면 「뿌리로부터」의 화자는 뿌리에서 즐기·가지·잎·꽃잎으로의 상승 이동을 통해 점차 희박해지며, 뿌리로부터 이탈하여 초월적 존재를 지향한다.

- ①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에서 화자가 대상에게 자기 생명력을 건네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대지가 뿌리와 의 합일 속에서 현신의 기쁨을 느끼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②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네 뺏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화자의 태도는, 뿌리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바치는 것으로서 후속작에서 ‘뿌리의 신도였’다고 회고하는 과거의 태도에 해당하겠군.
- ③ ‘거무스레 늴었으니’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에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대상에게 내어 주려는 것은, 후속작에서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것처럼 소멸을 통해 초월에 이르려는 태도에 해당하겠군.
- ④ ‘빈 그릇’이 된 뒤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준 뒤에도 다시 뿌리를 품을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순환을 통한 영원성의 꿈에 해당하겠군.
- ⑤ 후속작에서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이라고 한 것은, (가)에서 대지가 뿌리를 축복하며 ‘뺏어 가는 끝’을 바라보던 자세와 달리, 합일이 아닌 이탈의 방향으로 전환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현중은 ‘사물의 꿈’이란 시인이 사물의 사물다움을 알아보고 대신 꿈을 꿉주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때 사물은 시인의 시적 감수성에 의해 다른 사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은 사물 간의 일치가 아니라 접촉이다. 접촉을 통해 사물은 각자 존재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갖추어 간다. 한편 시인은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사물은 시인에 의해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자기 고유의 꿈을 유지하게 된다.

- ① (나)에서 나무가 ‘자기의 생이 흔들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 것은, 나무가 바람과의 접촉 속에서 바람의 본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바람과 하나가 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나무가 ‘햇빛과 입 맞추며’ 비와 뽕 비비’는 것은, 나무와 자연 현상이 접촉을 통해 만나되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나무가 ‘그의 힘을 꿈꾸’고 ‘그이 피를 꿈꾸’는 것은, 만남을 통해 나무가 자기 고유의 잠재적 속성을 자각해 가는 양상으로서 시인이 대신 꿉주는 사물의 꿈에 해당하겠군.
- ④ (다)에서 측은 등 네 마음이 ‘인의예지를 할 수 있는 본리’라고 한 것은, (나)에서 나무가 꿈꾸는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속성인 것처럼, 행사 이전에 마음속에 잠재하는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만약 가지 하나에 각각 뿌리가 하나씩 있다고 한다면’ 묘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물과 사물의 만남이 고정된 대응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기>의 관점과 통하는 면이 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진영은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전후에 아들 문수마저 의사의 무관심한 수술로 잃었다. 폐결핵을 앓으며 실직 상태인 진영은 어머니와 함께 문수의 시식을 위해 인근 절을 찾았으나, 늙은 중은 돈의 액수가 마음에 차지 않는 듯 무뚝뚝하게 가 버렸다.

곧 시식 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 조는 듯한 염불을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중은 염불을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히 쪼는 진영을 흘겨본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 않게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염불에 있지 않고, ㉡ 젓밥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염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씨근벌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 댁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 장삼(長衫)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어머니는 향을 쫓고 뺏뺏한 은행에서 갓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쫓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 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 놓으면서 시무룩하게,

“㉢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일,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 양손으로 얼굴을 푹 썼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진영은 새빨갳게 충혈 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없소. 그만두시오.”

일을 다 마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갓수”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貨幣)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計算)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서장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 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중략 줄거리] 진영은 한여름 내내 폐결핵이 악화되어 앓았으나, 병원마다 약을 속이는 현실에 치료를 중단했다. 음력설이 가까워진 날, 진영은 오랫동안 버려던 일을 해치우기로 마음먹는다.

진영은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눈이 사복사복 밟히는 비탈길을 걸어올라간다.

진영이 절 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하던 늙은 중이 막 승방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 옆으로 다가선다.

“저말이지요, 저이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시요!”

쏘아붙인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말 한 마디 없이 절문 밖으로 걸어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빨리 사진을 받아 가지고 절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었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 동안 쳐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사르어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A]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깡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 박경리, 「불신시대」 -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늙은 중이 정성을 기울여 시식에 임하는 모습에서 진영이 추모 의식의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며 안도한 것이다.
- ② ㉡은 중이 염불보다 자신의 예배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진영이 짐작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에게 불편한 심경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 ③ ㉢은 젊은 중이 문수의 내세에서의 안녕을 걱정하여 영가 노자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 ④ ㉣은 문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추모 의식 도중에 다시 밀려들어 진영이 비통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 ⑤ ㉣은 서장 부인의 시식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독경 소리를 통해 진영이 자신의 시식과 대비되는 차별적 대우를 반어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2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의 속도를 점차 빠르게 하여 인물이 행위에 옮기기까지의 갈등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 서술자의 감정 평가를 자제하고, 자연물의 감각적 묘사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인물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부분이 삽입되어 현재 행위의 동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긍정적 평가를 암시하고 있다.

29.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의 중들은 돈의 액수에 따라 시식의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진영은 약과를 둘러싼 중의 반응에서 추모 의식이 금전적 거래로 전락하는 현실에 울분을 느끼고 있다.
- ③ 진영은 절을 다시 찾을 때 중에게 사진과 위패를 돌려받으려는 실제 목적을 숨기고 거짓 이유를 대고 있다.
- ④ 진영이 절에서 사진과 위패를 돌려받은 것은 위패를 계속 모시려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것이다.
- ⑤ 진영은 위패와 사진을 소각한 뒤 쓰라린 추억만 남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남은 생명의 의미를 자각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는 전쟁 이후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급격히 변한 현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속을 유지하며 혼란을 겪지만, 주변 세계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강한 자의식을 지닌다. 이러한 자의식은 인물이 현실에 순응하거나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대신,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는 주체로 각성하는 근거가 된다. 인물은 속물적인 주변 세계 속에서 생명이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자신에게 남아 있는 생명의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

- ① 진영이 절에 시식을 의뢰하고 형식적인 추모 절차를 따르는 것은, '과거의 습속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겪는 울분은 '혼란'의 양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진영이 중의 태도에서 돈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강한 자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진영이 절에서 사진과 위패를 돌려받아 소각한 것은, '과거의 습속을 유지'하며 '혼란'을 겪는 인물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군.
- ④ 시식의 대가로 돈의 액수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절의 모습은, '속물적인 주변 세계'에 대응하며, 이를 통해 진영은 '생명이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군.
- ⑤ 진영이 소각 후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을 떠올리는 것은, '생명의 의미를 자각'하는 것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주체로 각성'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월가'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